

방탄소년단,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방탄소년단(BTS)이 17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100 Most Influential People)'에 뽑혔다.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 발매 이후 미국 빌보드 1위와 영국 오피셜차트 1위에 이어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타임은 매년 세상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집단 '아티스트', '리더'(지도자), '아이콘', '타이탄'(거인) 등 5

가지 범주로 나눠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발표해왔다.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주연 라미 말렉, 영화배우 겸 제작자 드웨인 존슨 등이 BTS와 함께 아티스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의 추천사는 새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피쳐링을 맡은 미국 팝스타 할시(Halsey)가 올랐다.

그레미 후보로 오른 싱어송라이터 할시는 추천사를 통해 "BTS는 놀라운 재능과 헌신으로 정상에 다다랐다. 판매기록을 깨트리고 세계를 휩쓴 팬덤으로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대사가 됐다. 그 뒤에는 음악이 언어의 장벽보다 강하다고 확신하는 7명의 놀라운 젊은이들이 있었다."라고 썼다. 또 방탄소년단의 빛나는 노래 뒤에는 자신감을 위한 긍정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16일 타임은 방탄소년단이 '2019 타임 독자 투표(2019 TIME 100 Reader Poll)'에서 약 6퍼센트의 득표율로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서미 스트리트' 50주년 축제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가 방송 50주년을 맞아 대륙 횡단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세서미 스트리트를 제작하는 비영리 교육단체 '세서미 워크샵'(Sesame Workshop)은 16일 빅 버드(Big Bird)·엘모(Elmo)·쿠키 몬스터(Cookie Monster) 등 세서미 스트리트의 유명 퍼펫들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미국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10개 도시를 자동차로 돌며 50주년을 기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페스티벌은 6월 1일 뉴욕을 시작으로, 워싱턴DC(6월 8일), 피츠버그(6월 15일), 디트로이트(6월 22일), 시카고(6월 29일), 댈러스(7월 6일), 캔자스시티(7월 13일), 덴버(7월 20일), 시애틀(7월 27일)을 거쳐 로스앤젤레스(8월 3일)에서 마무리된다.

공연 팀은 각 도시에 사흘씩 체류하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1969년 11월 10일 공영채널 PBS에서 방송됐으며 방송 초기부터 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 출연진을 적극 등장시켜 모든 어린이를 위한 차별 없는 교육 프로그램임을 표방했다. 1996년 조사 결과, 미국만 3세 어린이가 95%가 세서미 스트리트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미국인 8천600만 명 이상이 어릴 적 세서미 스트리트를 보면서 자란 것으로 추산됐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TV 부문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Emmy Awards)을 총 189차례 수상하고 그레미상을 11차례 받는 등 상복도 누렸다.

세서미 스트리트 50번째 시즌은 오는 11월 시작된다.

브란젤리나 커플 공식결별



앤젤리나 졸리(43)와 브래드 피트(55) 부부가 공식 결별했다. 이혼소송을 시작한지 3년 만이다. 두 사람의 이혼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졸리는 자신의 이름 뒤에 붙었던 '피트'라는 성을 뺐다.

연예매체 'ET'에 따르면 이들의 혼인 관계는 지난 12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ET는 이혼소송 자료를 인용해 졸리의 이름이 앤젤리나 졸리로 복원됐다고 전했다. 원로배우 존 보이트의 딸인 졸리는 원래 이름이 앤젤리나 졸리 보이트였지만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로 보이트란 성도 쓰지 않았다.

앞서 졸리와 피트는 지난해 연말 자녀 양육권 문제에 합의했다. 둘 사이에는 매덕스(17), 팩스(14), 자하라(13), 실로(12), 쌍둥이 비비앤과 녹스(10) 등 여섯 자녀가 있다. 이들은 런던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살고 있다.

졸리는 그동안 단독 양육을 주장한 반면 피트는 공동 양육을 요구해왔으며, 둘의 양육비 다툼은 지난해 언론에 각자 주장이 공개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1260호 숫자퍼즐 정답								
9	8	4	1	2	5	6	3	7
5	7	2	3	8	6	1	9	4
1	3	6	4	9	7	5	8	2
8	9	1	5	7	2	4	6	3
6	5	3	8	1	4	7	2	9
2	4	7	6	3	9	8	1	5
7	1	8	9	4	3	2	5	6
3	2	5	7	6	1	9	4	8
4	6	9	2	5	8	3	7	1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늦게 부자(富者)가 될 팔자(八字)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의 어느 중년부인이 필자의 사무실에 방문해서 자신과 남편의 운명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다. 먼저 필자가 남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남편분께서 타고난 그릇을 보면 글과 학문을 바탕으로 한 세월 공직이나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과 인연하는 팔자가 되지만 운의 흐름이 직장생활에는 애로가 따르는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기 사업을 나서야 되는 운의 흐름이 되지만 사업을 벌였다 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세월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기는 했었는데 오래 있지 못했고, 약 5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결국 망해버리고 지금은 실업자입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부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그래도 부인께서 지나고 있는 운의 흐름이 재물이 따르는 운의 흐름을 지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남편분의 사주를 볼 때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 말이 맞는지요?”라고 물으니 그 부인이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하는 말이 “아니 원장님, 그런 것도 다 팔자에 나오니까?”라고 놀라는 것이다. 이어진 필자의 이야기는 “다행인 것은 남편의 운의 흐름을 볼 때 앞으로 5년 후부터 재물운이 밀려오게 되고 최소한 20년 이상 크게 재물의 축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노후에는 부자(富者)로 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중하며 그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정말로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 때문에 큰 걱정을 했는데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수맥 탐사 전문

풍수지리 출장 감정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